



시베리아 민족과 불

불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오늘날의 문명을 창출케 한 인류 역사 이래 최대의 발견물이라 할 수 있다. 불이 발견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두컴컴한 밤 맹수의 식사거리가 되었을 것이며, 생식으로 인한 각종 질병에 시달렸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우리의 삶과 생명을 지켜주는 불.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은 나름의 문화코드 안에서 불에 대한 관념과 풍습을 만들어왔다. 참으로 혹독한 겨울 날씨를 가진 시베리아. 한겨울에는 영하 50도로 내려가는 일도 빈번하다. 이렇게 추운 환경에서 몸을 녹여주고 음식을 데워주는 불은 다른 민족들보다 시베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더욱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번 호에서는 시베리아의 많은 민족 중에서 불에 대한 다양한 풍습이 아직도 전승되고 있는 투바 민족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뚜바의 겨울은 10월 초부터 눈이 내린다.

뚜바인들은 현재 러시아연방 뚜바 공화국에 살고 있다. 뚜바 공화국은 지정학적으로 아시아 대륙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남쪽으로 몽골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부리야트 공화국, 북쪽으로는 크라스노야르스크주, 동쪽으로는 알타이 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28~35도일 정도로 매서운 겨울 날씨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불에 대한 뚜바인들의 관념은 남다른 수밖에 없다.

불에 대한 관념과 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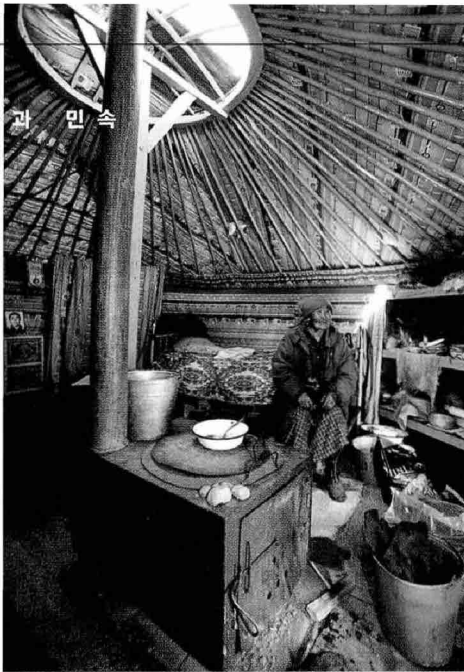
뚜바어로 불은 '웃'이다. 그들은 불을 '작은 태양'이라고 여기는 한편 인간을 창조한 것은 불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마치 창조주에게 하는 것처럼 최고의 정성을 다한다. 또한 불의 정령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절대 빠치게 하거나 화를 내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불의 정령이 화가 나면 먼저 집안의 가장이 아프고, 가장보다 어린 가족 구성원이 아프기 시작하여 결국 전 가족이 병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뚜바 사람들에게 불 옆에서 싸움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불에 대고 침을 뱉는 행위도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모닥불을 끄기 위해 불에 대고 소변을 보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마치 우리가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유럽인들의 반응처럼 아연실색한다. 잡초가 탈 때 냄새나는 물건들을 불에다 던지는 것도 금기시한다. 뼈다귀나 먹다 남은 음식을 던지는 행위도 절대 안 된다. 만약 불가에 쓰레기를 놓아 두면 아이들이 병에 걸리고 집안의 정령들이 도망간다고 생각한다. 또한 불길에 발을 대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 다리가 붓고 아이들이 아프게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금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머리카락 또한 불에다 던지면 안 되고 불 위를 뛰어 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 영혼이 달아난다고 믿기 때문이다. 집 안에 있는 화덕도 함부로 넘어 다니면 절름발이가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모르고 화덕이나 불 위를 넘었다면 반드시 샤먼에게 찾아가 자신의 죄를 씻는 정화의례를 받아야 한다.

유르따(뚜바인이 사는 펠트천으로 만든 천막) 내부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는 중앙에 위치한 화덕이다. 뚜바인들은 유르따 내부를 하나의 우주로 보는데 화덕은 우주의 중심이자 태양의 상징인 것이다. 여자들은 주로 하는 일의 특성상 불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지만, 해가 지고 나면 절대 화덕 옆에 갈 수가 없다. 오직 해가 떠 있을 때만 화덕 곁으로 갈 수가 있다. 손님이 왔을 때 여자는 불과 손님 사이를 지나 다닐 수도 없다. 손님의 뒤 쪽으로 돌아서 이동해야 한다. 또한 화덕에 불을 지필 때 이미 불에 타다 만 것을 다시 화덕에 넣는 행위는 무척 불경하다고 여긴다.

불은 입도 가지고 있다. 불의 입은 장작을 쌓아놓는 장소이다. 그래서 항상 이곳은 깨끗이 정리정돈이



▲유르따와 유르따 가운데 있는 화덕
▲▲샤먼은 의례를 행할 때 불을 반드시 피운다.

되어 있어야 하는 데, 만약 장작이 너저분하게 쌓여 있으면 결코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믿는다.

뚜바에도 도깨비불이 있는 모양이다. 안개 낀 저녁에 나무가 없는 돌산꼭대기나 강가에 불빛이 나타나 춤을 춘다고 한다. 그들은 이 불을 '악마의 불'이라 부른다. 그래서 어른들은 안개 낀 저녁에 아이들의 바깥출입을 금하고 있다. 만약 어린이가 이 불을 보게 되면 부모는 다음날 반드시 샤먼에게 가서 아이를 위해 일련의 의례를 주문한다.

일상생활과 불

뚜바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화덕에 불을 피우고 차를 끓이는 일을 한다. 그리고 차를 끓이자마자 수저로 차를 조금 떠서 불에다 던진다. 이러한 풍습을 '차즈익'이라고 하는데, 차뿐만 아니라 아침식사를 준비한 후 음식의 일부도 던져 불의 정령을 대접한다. 도시나 큰 시골마을의 뚜바인들은 이러한 의례를 행하면서 별다른 주문이나 기도를 외우지 않지만, 아직도 전통적인 방식의 유목을 하는 뚜바인들은 차즈익을 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한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창조자이신 나의 불이시여
당신은 우리의 신이십니다.
당신은 저의 뿌리입니다.
당신에게 새 차를 바칩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들의 태양이며
행복을 만드는 자입니다.
우리를 굶주림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부디 우리 앞날을 지켜주소서

아침에 불을 대접하는 이러한 행위는 보통 혼인을 하고 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 갓 혼인을 하면 유르따를 새로 지어 그곳에서 신혼살림을 꾸리는 데, 이 때 새로 지핀 불은 아직 어리다고 하여 3년 후에야 불을 대접할 수가 있다.

유목을 하게 되면 철마다 가축들의 방목을 위한 목초지를 따라 이동을 해야 한다. 보통 봄, 여름, 가을에 이동을 하며 이런 식으로 일 년에 3~4번 정도 이사를 하게 된다. 이사를 하게 되면 원래 살던 유르따를 철거해야 한다. 집안의 가장은 먼저 천막을 걷고 집안에 있던 쓰레기를 다 치운다. 그리고 마지막에 화덕으로 가서 가장 뜨거운 장작을 꺼내 가족 중

가장 나이 많은 사람에게 준다. 최연장자는 이것을 새로운 유르따까지 들고 간다. 만약 이사갈 곳이 너무 멀다면 가장은 불을 숯에 옮겨 그것을 가죽주머니에 넣고 그것을 옆구리에 차고 간다.

화덕의 불이 꺼졌다 해서 절대 다른 집의 불을 빌려다 쓸 수는 없다. 만약 집에 불이 꺼졌고, 부싯돌 등이 없어 불을 지피기 힘들다면, 여성 가장은 외삼촌에게 가서 불을 빌려와야 한다. 집 안의 불은 아주 가까운 친척 이외에는 절대로 나눠주면 안 된다.

애연가가 항상 라이터를 챙겨 다니듯, 뚜바 남자들에게 불을 붙이는 도구는 늘 가지고 다녀야 하는 필수품이다. 보통 칼은 허리띠 오른쪽에 차고 '옷뚝'이라고 부르는 불을 붙이는 도구는 왼쪽에 차고 다

닌다. 옷뚝의 몸통은 가죽주머니로 되어 있고 밑 부분은 살짝 구부러진 철로 된 판이 짝 조여 붙어 있다. 가죽 주머니 안에는 부싯돌과 부싯깃을 넣게 되어 있고, 불을 붙일 때에는 부싯돌을 옷뚝 밑 부분의 쇠에 부딪혀 불뚝을 일으키며 부싯깃에 타들어가게 한다. 옷뚝은 쇠조각 등으로 겉면에 여러 문양을 만들어 한껏 멋을 낸다.



남자들은 항상 허리띠의 왼쪽에 옷뚝을 차고 다닌다.

불을 이용한 의례행위와 불을 위한 제의

뚜바인들의 모든 의례에 불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매년 새해가 밝으면 남자들은 해를 맞이하러 주변 언덕이나 산에 올라간다. 해맞이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모닥불을 피우는 것이다. 모닥불은 얇게 쪼갠 나무를 정(井)자 모양으로 쌓아올려 만든다. 쌓아올린 장작 위에는 간단한 먹을거리를 올려놓는다. 해가 뜨기 시작하면 장작에 불을 지피고 불 주위를 시계 방향으로 세 바퀴 돌며 소원을



▲쌍살라리를 위해 쌓은 장작과 제물
▲▲쌍살라리를 하고 불에 절하는 모습

빈다. 이렇게 불을 피우고 의례를 행하는 것을 '쌍살라리'라고 부른다. 불이 다 꺼진 다음에야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오자마자 화덕에 불을 지피고 여기에도 음식물을 바치며 새해의 소망을 빈다.

불을 위해 제의를 행하기도 하는데 가난한 사람이건 재산이 많은 사람이건 불에 대해 정기적으로 제의를 베풀어야 한다. 불을 위한 제의는 가족들을 위해 가을 방목지로 이사를 가고, 월동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한다. 제의의 진행은 샤먼이 하는데 되도록이면 주변에서 영험하다는 소리를 듣는 샤먼을 초청해서 의례를 부탁한다. 불을 위한 제의에는 모든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참여한다. 부자들은 제물로 보통 큰 양을 잡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염소를 바친다. 이 제의의 목적은 불에 대한 대접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이 제의를 통해 가족들의 건강과 가족들의 다산 등을 바란다. 샤먼은 북을 치며 노래를 하고 미리 준비해 놓은 음식과 차를 지속적으로 던지면서 의례를 행한다. ☺